

축 사

중앙승가대학교는 현대적 교육 체계와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이 어우러진 우리 종단의 대표적 인 교육기관입니다. 31년 역사의 중앙승가대는 그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고, 그 인재들이 종단 각 분야에서 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불교중흥이 교육에 달려있음을 생각할 때 중앙승가대학의 미래는 곧 불교의 미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올해로 26살을 맞는 중앙승가대학의 교지 <승가>는 오랜 시간동안 미래불교의 동력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지금까지 <승가>에 애정을 쏟아 오신 모든 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, 아울러 26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.

<승가>는 학문에 대한 탐구와 구도의 열기를 담아내는 학인스님들의 마당이자, 수행 · 교육 · 포교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스님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 대화의 마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중앙승가대학 가족 모두가 변함없는 구도열로 <승가>를 더욱 빛내 주시리라 믿습니다.

33대 총무원은 올해 초 사부대중과 중정예하의 뜻을 받들어 “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”를 발원하고,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는 승가교육의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 종단은 종단의 대표적인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이 초발심수행자들의 든든한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
승가가 살아있을 때 불교가 살고, 승가가 시들면 불교도 시들게 됩니다. 경율론 삼장을 배우고 의전을 겸수하여 굳건한 중심을 바로 세운 승가는 이 시대의 중심이 되고 불교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. 학인 여러분의 소중한 한 시간 한 시간이 불교 포교의 밑거름이 됩니다.

학문과 수행에 전념하는 학인,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선지식들을 무량겁 배출해 내는 중앙승가대학이 되기를 거듭 축원하는 바입니다.

불기 2554년 6월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
중앙승가대학교 이사장